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서거 79주기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대한민국106년 5월 8일(수) 14:30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광복회장
이 종 찬

추 모 사

“제3자의 악평(惡評)을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실만을 들어서 호평할 것”

여러분, 이 말은 고하 선생께서 동아일보사 사장이 되시면서 남기신 5개조의 사원훈(射員訓) 중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하 선생께서는 엄혹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언론과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날카롭고 매서운 글을 써야 했던 그 시절에도, 광복 후 좌우가 갈라져 극심한 이념 대립을 하던 그 냉전의 시절에도,

사원인 기자들에게 고하 선생께서 당부하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되도록 좋은 사실로 사람들을 호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비판을 위해 직필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사람 사이에 불신을 낳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하 선생의 뜻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민족 분단과 나날이 심해지는 지역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 화합은커녕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글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경종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의 흉상이 육사에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독립영웅들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당국이 온당치 않은 흉상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흉상 철거 이전 백지화는 역린(逆鱗)을 끊고, 순리(順理)를 따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려는 것입니다.

고하 선생께서는 민족 모두가 동참하는 집단운동으로서 광복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상생, 민족 단합을 통해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과 교육 부재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잊혀지고, 고하 선생께서 말씀하신 화합과 상생이라는 가치보다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말로, 고하 선생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동참하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고하 선생께서 서거하신지 79주기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고하 선생께서는 후세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2024년(대한민국 106년) 5월 8일

광복회장 이 종 찬